

'울돌목 거북배' 살 곳 없소? ... 해남군, 공개 매각

관광객 감소에 누적 적자 35억원... 우수영항에 7년째 운항 중단 감정평가액 10억9000만원... 운항 재개 위해 엔진 교체 등 수익 소요

7년째 해남 우수영항에 말이 묶여 있는 '울돌목 거북배'가 유람선으로 다시 운항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해남군에 따르면 울돌목 거북배 행정재산 용도 폐지 및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해남군의회에 제출했고 군의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울돌목 거북배는 안전검사, 보험, 경비유역 등 매년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노후화와 예산 확보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매각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울돌목 거북배는 전남도가 전남개발공사에 의뢰해 44억 원을 투입해 건조했으며 2008년 10월부터 해남 우수영-진도 녹진항-울돌목-진도 벽파진항을 일일 4차례 운항했다.
하지만 관광객이 줄고 흥행을 끌지 못하며 누적 적자가 35억여 원에 달하자 2017년 9월 운항이 중단됐다. 운항한 지 9년 만에 중단된 것이다.
해남군이 전남도로부터 무상으로 양수받아 운항 재개를 검토했지만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관광객을 붙잡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골치거리로 전락했다

울돌목 거북배 감정평가액은 10억 9000만 원으로 군은 내년에 공개매각에 들어갈 예정이다.
매각 시 우수영항을 기점으로 한 유람선으로 활용, 6개월 이내 운항 등 사업계획 실행, 8년 이내 재매각 금지 등 조건을 담아 당초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장기간 멈춰있어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엔진 교체, 수선 등 수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매각이 이뤄질지, 얼마에 매각될지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울돌목 거북선이 그동안 예산 문제 등으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는데 기회가 돼 다시 띄워진다면 '명량'을 상징화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떠오르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 우수영항에 정박중인 울돌목 거북선.

신안군, 흑산 홍어 해체 전문가 81명 양성

5기 홍어 썰기 학교 수료식 5년간 69명 자격증 획득

신안군은 제5기 홍어 썰기 학교 수료식을 갖고 자격증을 교부했다고 11일 밝혔다.
홍어썰기학교는 2020년 신안군 관광협의회 흑산지회 주관으로 흑산도 주민들의 고용화로 인해 명절이나 대목에 홍어를 써는 인력이 부족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번 강좌는 수강생 22명이 참여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흑산면주민센터에서 진행됐다.
신안군 수협 등에서 실습용 홍어를 무료로 제공하고 수업료도 받지 않았다. 수업은 홍어 숙성, 썰기, 포장 등 실습 위주로 실시했다. 제5기까지 총 81명이 수료했다.
강좌를 모두 마치면 초급·중급·고급·장인 등 등급별로 홍어썰기 민간자격증 시험을 치른다.
자격증은 지난 10월 8일에 실시한 제4회 흑산홍어 썰기 자격시험에서 초급 자격증 18명, 중급



지난 6일 신안군 흑산면 게이트볼장에서 홍어 썰기 학교 제5기 수료생과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자격증 4명을 포함한 5년간 총 69명이 취득했다.
최서진 홍어 썰기 학교장은 "홍어썰기 기술이 지역주민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며 "더 많은 수료생들을 배출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군 관계자는 홍어 축제 개최, 흑산 홍어 포장재 제작 지원, 다양한 홍어 요리법 개발 등 흑산홍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K-발효식품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완도 위기가구 300세대 월동 지원

1675세대 노후 주택 개보수... 난방비·방한용품 전달도

완도군은 내년 2월까지 한파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약 1675세대를 대상으로 노후된 주택 개보수를 실시하고, 난방비와 방한 용품을 지원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단전, 단수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발굴한 300세대의 위기가구는 읍면 맞춤형 복지팀이 직접 방문, 긴급 복지 지원 등을 추진한다.
노인, 아동, 고독사 위험군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관심을 기울여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2개월 동안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모금하고 모금된 성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추운 겨울, 소외되는 군민 없이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총심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원하는 경우 완도군 희망복지팀(061-550-5312) 또는 읍면사무소 문의하면 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사랑의 밥차', 어르신 8700명에 온기 나눔

목포시, 올해 일정 마무리 11년간 357회 16만명에 제공

목포시는 지난 3월부터 시작한 'TBK기업은행과 함께하는 참! 좋은 사랑의 밥차'의 올해 일정을 지난 10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참! 좋은 사랑의 밥차는 동절기 3개월(12월, 1월, 2월) 동안 중단됐다가 내년 3월 재개된다.
사랑의 밥차는 올해 한 해 동안 29회 운영되어 87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했다.
11년간 자원봉사자 584개 단체, 1953명이 헌신적으로 급식 봉사 활동에 참여했고, 30개단체, 170명의 재능기부 봉사자들이 참여해 이·미용 봉사과 건강검진, 국악, 가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어르신들과 뜻깊은 만남의 시간을 함께했다.
위탁을 맡은 목포복지재단 관계자는 "노년의 어르신들에게 사랑과 정성으로 점심을 대접하고 건강운동과 오락을 통해 작은 행복을 드리게 되어 큰



박홍률(오른쪽) 목포시장이 참! 좋은 사랑의 밥차 행사에서 급식 봉사를 펼치고 있다. <목포시 제공>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11년째 운영 중인 사랑의 밥차는 지금까지 357회, 15만 8505명의 어르신들에게 무

료 점심식사를 제공했으며 자원봉사자 4781개 단체 1만 8680명이 참여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신안군 '차별 없는 조직 문화' 조성 다짐



신안군은 세계 인권 선언 76주년이 된 지난 10일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해 본청 1층 로비에서 인권 실천 다짐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 캠페인은 출근시간대를 이용해 전 직원과 함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일찍 방문한 민원인들도 함께했다. 인권 실천 다짐 릴레이 포토존, 떡을 나눠

주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인권 실천 다짐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직장 내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누구나 차별없이 평등과 존중이 중심이 되는 조직 문화 형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광군 '행정 우수 사례' 군민이 선정

내일까지 온라인 투표... 최종 5건 선정

영광군이 군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적극 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한다.
영광군은 오는 13일까지 '2024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군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표는 영광군청 누리집에 접속해 '열린 군정→참여 마당→설문조사' 항목에서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선정 군민 투표'를 선택한 후 게시된 10건의 후보 사례 중 최소 3건을 선택하면 된다.
앞서 영광군은 1차 우수사례 24건을 내부 직원 투표를 거쳐 10건으로 압축하고 군민 투표에 나섰다.

영광군 적극 행정 심의위원회는 군민 온라인 투표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1-7위 사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할 방침이다.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서 담당자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사례 내용만 표기할 예정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더 나은 군정 서비스와 혁신적인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창현 기자 kcw@kwangju.co.kr

진도군 금연사업

'복지부 장관' 표창

환경조성 호평... 전남지자체 유일

진도군 보건소는 '2024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진도군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금연 환경조성'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진도군은 '진도다운, 흡연 Down(다운)'이라는 금연 캠페인으로 ▲홍보 콘텐츠 다양화 ▲공연형 흡연 예방교육 확대 ▲민·관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를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금연 성공자와 유관기관 합동 운동, 찾아가는 학교 흡연 예



김희수(왼쪽에서 세번째) 군수 등 진도군 관계자들이 '2024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진도군 제공>

방 공연형 교육, 이동 금연치료소 운영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한 실효성 높은 사업으로 평가됐다.
이음복 진도군 보건소장은 "이번 수상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이뤄낸 성과"라며 "앞

으로도 다양한 금연 사업을 진행해 지역사회의 금연 환경조성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kwangju.co.kr

영암군민, 어디서든 마을방송 듣는다

'스마트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 스마트폰에 앱 설치

영암군은 지역 전역에서 청취할 수 있는 '스마트 재난방송'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이 시스템 구축으로 영암군민 누구나 어디서나 마을방송과 재난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육의 확성기와 가정용 수신기 등을 활용해 마을회관에서 발송하는 기존 마을·재난방송은 그동안 많은 불편 민원이 야기됐다.
청력이 약한 어르신의 경우 청취가 어려웠고, 마을회관과 멀리 떨어진 가정에서는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에 '영암군 스마트재난방송' 앱 '청취용'을 설치하고 거주지 읍·면의 마을을 선택한 다음 본인 인증하면 휴대전화로 방송을 들을 수 있다.
방송은 실시간으로 마을회관의 시스템과도 연동돼 육의 확성기로도 전파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일상에 필요한 생활정보부터 재난 등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안전 정보까지 모두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어 정보격차에서 오는 불편을 줄이고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